



아이 시원해~ 19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2022학년도 대입 정시 30% 이상 확대

### 수능 국어·수학·직탐에 공통+선택형 도입 선택과목 확대...EBS 연계율 50%로 축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위주 정시전형 선발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 과목 등은 공통형+선택형 구조가 도입되며, EBS-수능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19일 "교육과정과 대입의 불일치로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과거 회귀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학생 입장에서 "수능 선택과목 조합이 816개의 경우의 수로 복잡해져 정보가 부족한 지방학생들 부담이 특히 커지게 됐고, EBS 연계율 축소로 사교육 여건이 좋은 수도권 학생 등 특정 학생들만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 대학에 권고한 대목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의 정시전형 비율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 대상에 산업대·전문대·원격대 등은 제외된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상당수 지방대학) 역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입 개편 확정안 첫머리에 오른 정시 비율 30% 확대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교육전문가가 적지 않다.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직탐과목에 공통+선택형 구조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탐구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 학생들 희망에 따라 총 17개 과목

(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수능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기하 과목, 과학 II (4개 과목)도 선택과목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선택 과목 수가 많아져 학생 부담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진 광주시교육청 장학사는 "복잡해진 수능 체제는 특정 과목 솔림으로 학교 현장은 파행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해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수능-EBS 연계율 축소(70~50%)의 경우,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50% 고득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교육 환경이 좋은 수

도권 학생,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교교과생활기록부, 대입 자기소개서 개선 대책도 내놓았다.

인적사항 가운데 학부도 정보란을 삭제하고, 대입제군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로 제한한다. 학생부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대입 전형 서류 가운데 하나인 자기소개서의 경우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된다. 교사추천서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내년부터 '교사와 자녀 동일교과 배제(고교 상피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근무하는 고교에 자녀가 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교사를 타 학교로 전근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박승춘 처장 때 위법 조사해달라"

### 보훈처, 경찰조사관 파견 요청

국가보훈처가 지난 정부 때 보훈처의 위법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조사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며 "경찰이 파견한 조사관 4명은 지난 13일 출범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출범한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로 인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 보훈단체 불법행

위 등 지난 정부 시절 보훈처 정책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보훈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간부급으로 알려진 경찰 조사관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재발방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가 경찰에 조사관 파견까지 요청한 것은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위법행위를 조사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작년 말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여러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었다.

김홍희 기자 kimyh@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달뜨기 14:49  
 해질 19:16    달지기 00:31

아침은 가을... 낮은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23/35	보성	맑음	21/32
목포	맑음	25/33	순천	맑음	23/33
여수	맑음	24/31	영광	맑음	23/34
나주	맑음	22/35	진도	맑음	24/34
완도	맑음	24/31	전주	구름맑음	23/35
구례	맑음	20/33	군산	구름맑음	23/33
강진	맑음	23/32	남원	구름맑음	21/33
해남	맑음	23/32	흑산도	맑음	24/30
장성	맑음	22/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	남동~남	1.0~2.5	남동~남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동~남동	1.0~2.0	북동~동	1.0~2.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2:14	14:27	08:42	21:54
여수	09:56		03:32	
	23:52		17:43	

### ◇주간 날씨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	☁	☁	☀	☀	☁	☀
24/35	25/34	26/33	25/33	24/33	25/33	25/34

## 병사 '평일외출' 오늘부터 시범운영

### 오후 6시부터 음주 금지·PC방은 가능...밤 10시 전 복귀

국방부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원을 대상으로 일과 이후 병사 평일 외출을 시범 운영한다. 또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도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려고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다.

육군은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

이며, 해군과 해병대는 1한다,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이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 518방공포대 등이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이며, PC방 출입은 시범운영에서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외출해 당일 저녁 점호시간(통상 밤 10시) 전까지 복귀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빛 1호기 발전 중단

### 6기 중 4기 '정비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950MW급)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 제24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감에 따라 발전을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 기간동안 원전 연료 교체, 설비 정비 및 점검 등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한빛 6기 가운데 4기(1~4호기)가 정비 중이다. 한빛 2호기는 지난달, 한빛 3호기는 지난 5월, 한빛 4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정비를 하고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제6회 무안 황토갯벌축제

## 2018. 9. 7(금) ~ 9. 9(일)

장소 무안황토갯벌랜드 일원

**주요 행사**

- 풍요갯벌 퍼레이드
- 황토갯벌 운저리 낚시 체험
- 낚지·장어 잡기, 농게 잡기

- MBC 축하공연(유명가수 출연)
- 내가 잡은 물고기 즉석요리체험
- 갯벌 머드탕, 황토탕, 황토놀이터 등

**무안군**